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1월 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1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. 1.(화)	담당부서	무역진흥과, 수출입과
담당과장	이상준 과장(044-203-4030) 조익노 과장(044-203-4830)	담 당 자	진승덕 사무관(044-203-4035) 한주현 사무관(044-203-4041)

성윤모 산업부 장관, 새해 첫 수출현장 방문!

- 민관 합동으로 국내 최대 수출 전초기지, 부산신항 방문 -
- '18년 연간 수출액 사상 최대 실적 기록* -
- 2년 연속 수출 6천억불 달성을 위해 수출 총력지원 가동 -

※ '18년 연간 수출액은 1.1(화)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 참고

□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**'19.1.1(화) 오전, 새해 첫 현장방문**으로 국내 최대의 수출관문인 **부산신항을 방문**하여 **수출물류 상황을 점검**하고, 휴일에도 근무중인 **현장 근로자들을 격려**하였다.

* '18.1~11월 누계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,978만TEU로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2,641만TEU의 75% 비중 차지

< 부산신항 방문 개요 >

□ 일시 / 장소 : '19.1.1일(화) 09:00 / 부산신항 홍보관 및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

□ 주요 참석자 :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, 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,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, 한진터미널 정세화 대표

○ 이번 방문은 수출기업을 대표하여 **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**을 비롯한 **무역협회 관계자**와 **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, 정세화 한진터미널 대표** 등이 참석하였으며, 모든 참석자들은 수출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**민간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할 것**을 다짐하였다.

< `18년 수출평가 및 `19년 전망 >

□ 성 장관은 "우리 수출은 '64년 1억불을 기록한 이래 **지난해 역사상 최초로 6,000억불을 돌파**하였으며, 이는 **우리 제품의 품질과 기업의 기술·경쟁력**이 **선진 수준***에 다가섰음을 의미한다"고 언급하면서,

* 역대 미국, 독일, 중국, 네덜란드, 프랑스, 일본 순으로 수출 6천억불 달성

○ “특히, 반도체 이외에 **전기차·2차전지** 등 **신산업**과 **화장품·의약품** 등 **소비재**로 품목이 다변화 되고, 지역도 미·중에 편중되지 않고 **신흥시장에서도 선전**한 결과”라고 평가하였다.

* 신산업 수출 증가율이 총 수출 증가율의 2배 수준으로 급성장, 아세안·베트남·인도 등 신남방 지역 최대 실적, CIS 등 신북방 수출비중 3년 연속 상승

□ 성 장관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**올해 수출 전망에 대해 설명**하면서,

○ “올해는 **미·중 통상분쟁, 세계경기 둔화,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** 등으로 우리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”으로,

○ “수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여 **2년 연속 수출 6천억불을 달성**할 수 있도록 **통상현안에 적극 대응**하는 한편,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**수출활력 강화에 역점**을 두고, **‘산업정책의 사령탑’** 역할을 본격 강화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< 수출정책 추진방향 >

□ 성 장관은 이를 위해, “민·관이 함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찾아다니는 **「수출투자활력 촉진단」을 신설**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고, **상반기중 수출마케팅 지원의 60% 이상**을 집중 투입해 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것”이라고 밝히며,

○ “특히, 어려움을 겪는 차부품·조선기자재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**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을 대폭 확대**(상담회·사절단 ‘18년 63회 → ’19년 96회)하고 **미래차, 선박개조·수리·친환경 등 신규시장 진입 지원**을 강화”하는 한편,

* 볼보·닛산·SF Motors(미) 등 대상 전기차·전장부품 등 1:1상담회(3월·4월·9월·11월) 싱가폴 선박개조·수리 상담회 개최(4월), 아테네 친환경 선박기자재 벤더등록 지원(11월)

○ “**무역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**(‘19년 155조원)하여 **중소・중견 수출기업의 리스크 경감과 어려워진 경영여건 개선**에 만전을 기할 것임“을 강조하였다.

* 수출 초보기업 수출이행 자금 특별제공(시행중), 中企 보험료 35%까지 일괄 할인, 新산업・新시장 보험한도 최대 2.5배 확대/보험료 최대 50% 할인(‘19.1월~) 등

□ 아울러, 새해 휴일에도 수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**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감사**를 표하면서,

○ 수출물류를 담당하는 현장 근로자들이 **우리나라 수출의 대동맥**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**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**하였다.

※ 수출현장 방문사진은 1.1일(화) 별도 배포예정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진승덕 사무관(☎ 044-203-403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